

■ 열두띠 음양각판화 대한 설명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두띠는 무슨 동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구본을 중심으로 분수를 설치하고 그 둘레에 12개의 석조물(소형 석조벤치 선단)에 대략 A4사이즈 내외 크기의 판화처럼 음각과 양각으로 새겨지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민간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우리 전통문화와 작품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은 고덕 그라시움에 사는 모든 사람, 즉 집단의 상징을 누구나 띠를 가지고 12띠를 떠올렸고 각자의 띠에 대한 상빙을 희화화하여 표현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